

# 자녀 관계 및 유산증여 기대에 따른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관한 연구\*

- 노인 독거가구와 비 독거가구를 비교하여 -

Changes in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Generations  
According to Children's Relationships and Inheritance Bequest Expectations  
- Comparison Between Elderly Households Living Alone and Not Living Alone -

정보선\*\*  
Jeong, Bo Seo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hildren's relationships, inheritance expectations, and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 the context of care. We used KLoSA data from 2012 to 2020 for nonresident elderly households aged 65 or older with children. Results reveal that the residential adjustment factor for living close to children is expected to increase for older parents who require care support due to deteriorating health, have available resources such as the number of surviving children or daughters, live in major cities, and have relatively low relocation costs. In single-elderly households, the proximity of both sons and daughters increased, and expectations of inheritance bequest played a significant role. Meanwhile, this suggests that elderly parents who have resources for their children and meet more than once a week are less likely to want to relocate. Finally, the increased living proximity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could be the result of a residential adjustment process to be closer to children where the need for elderly care is high but not available or not living close enough to their children.

Keywords ▶ Aging, Strategic Bequest Motive, Residential Proximity, Residential Adjustment

## 초 록

본 연구는 노부모 돌봄 맥락에서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중점을 두어 자녀 관계 및 유산증여 기대가 미치는 영향 및 독거효과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을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2012년~202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 약화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부모, 생존 자녀 수, 딸 유무와 같이 가용 자원이 많은 노부모, 대도시 거주 노부모, 상대적으로 이동 비용이 저렴한 노부모는 자녀와 가깝게 거주하려는 주거지 조정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단독가구에서 아들과 딸 모두 근접성이 증가하였으며, 유산증여 기대가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자원이 존재하는 노부모는 주거 입지를 재조정할 욕구가 감소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가깝게 거주하려는 근접성 증가는 노년기 돌봄의 필요가 높으나 자녀들과 충분히 가까이 살지 않는 경우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주거지 조정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요 단어 ▶ 고령화, 전략적 유산 동기, 주거 근접성, 주거지 조정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73417)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 단독저자(boseon1022@naver.com)

## 1. 서론

우리 사회의 인구 변동은 고령화를 뿐 아니라 노인 인구의 절대 수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1)</sup> 2020년 기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7%이며, 향후 인구 고령화율은 2025년에는 20.0%, 2030년에는 25.0%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2020년 노인 인구는 8,125천 명이며, 2030년에는 12,980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sup>3)</sup>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노인 부모 세대가 은퇴를 시작함에 따라 오늘날 노인 돌봄에서 성인 자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Fu, 2019). 오늘날 핵가족의 출현과 복지 제도의 발전이 가족 내의 사적인 지원을 몰아낼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최근 증거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Künemund et al., 2005). 독일의 경우, 비교적 잘 발달된 복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가족 유대가 긴밀한 정서적 관계, 지리적 근접성, 빈번한 접촉 및 다양한 유형의 상호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Kohli et al., 2002).

돌봄 제공에 따른 높은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돌봄은 여전히 노인 지원의 중요한 원천이다(Johar et al., 2010). 일반적으로 배우자 외 자녀는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므로 다른 친척보다 연약한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Litwak, 1985). 이는 주로 부모와 자녀를 결속시키는 세대 간 연대에서 기인한다(Rossi and Rossi, 1990; Bengtson and Roberts, 1991). 많은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관계는 성인기와 노년기에도 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dt et al., 2009; Nauck, 2009; Rossi and Rossi, 1990; Silverstein and Bengtson, 1997; Szydlik, 2000, 2008). 더욱이, 성인 자녀는 일반적으로 더 젊고 건강이 좋기 때문에 부모의 형제자매나 다른 비슷한 연령의 또래보다 더 효과적인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Dykstra, 2009).

한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근접성이

전제 조건이다(Fu, 2019). Pezzin et al.(2007)과 Brown(2006)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 요구에 충분히 이타적인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녀가 돌봄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하였다. 방문하기 때문에 부모가 거주하는 장소 간의 거리는 부모를 돌보기 위한 실제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nrad et al., 2002).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와 더 가까이 사는 자녀는 멀리 사는 형제자매보다 돌봄 비용이 더 저렴하다(Fu, 2019). 대면 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거리에 의한 마찰(friction of distance)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이길제·최막중, 2017).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은 단기, 일시적 또는 긴급 지원에만 이용할 수 있다(Dykstra and Knipscheer, 1995). 따라서, 인근에 거주하는 비동거 자녀는 일종의 특정 위치 자본으로 볼 수 있으며(DaVanzo, 1981), 자녀의 주거지 근접성은 자녀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이다(Fu, 2019).

최근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간병을 대가로 자산을 남기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전략적 동기를 유산상속에 고려하고 있다(Izuhara, 2002). 이때 부모는 주거지 근접성을 돌봄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서적으로 가까운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Ho, 2022). 즉, 지리적으로 더 가까워지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이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Szydlik, 2012). 이러한 자녀가 제공하는 돌봄 수준에 따라 유산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Ho, 2022), 자녀로부터 받는 관심과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Angelini, 2007). 따라서 부모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살핌과 관심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자녀가 유산 분배에서 혜택을 받는다(Erixson and Ohlsson, 2019). 이때 부모는 유산에 대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Angelini, 2007) 본 연구에서는 생전에 부모의 유산증여 기대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전략적 행동, 즉

1)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2)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3) www.kostat.go.kr,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거주지 선택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리적 관계 변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 돌봄 맥락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주목하여 자녀 관계 및 유산상속 기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구 형태에 있어 노인 독거가구가 38.5%로 타 가구 유형에 비해 돌봄 지원 수혜율이 높는데,<sup>4)</sup> 이러한 독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가구를 독거가구와 비 독거가구로 나누어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의의는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 간 지리적 관계를 기반으로 도움, 보살핌, 유산상속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세대의 지리적 관계를 생성하는 부모와 자녀 간 거주지 선택 과정에서 노부모 돌봄의 맥락에서 전략적 유산 동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 2012년(4차 조사)부터 2020년(8차 조사)까지를 활용한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비동거하는 노인가구이다. 분석 모형은 패널프로빗모형(Panel Probit Model)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돌봄과 세대 간 근접성, 전략적 유산 동기와 세대 간 근접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분석 모형, 자료, 변수들을 설명하고, 기초통계량을 개괄한다.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술 및 해석한다. V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1. 이론적 배경

#### 1) 돌봄과 세대 간 근접성

이론적으로 노년기 돌봄의 필요와 세대 간 근접성 사이의 연관성은 Litwak and Longino(1987)의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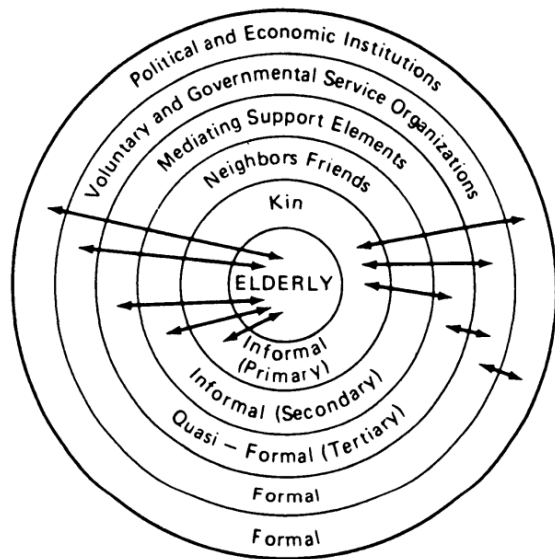
년기 이동 모델과 Cantor(1979, 1991)의 노년기 돌봄의 계층적 모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Litwak and Longino(1987)은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이동 유형을 세 가지로 이론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은퇴기에 발생하는데(Clark and Wolf, 1992; Wiseman and Roseman, 1979), 기혼이며 비교적 젊고 건강하며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노인들의 일부는 더 나은 삶의 질이나 편의 시설을 찾기 위해 이동한다(Biggar et al., 1984; Rogers and Watkins, 1987; Carter, 1988; Fournier et al., 1988; Serow, 1987). 두 번째 유형은 노인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Rogers and Watkins, 1987) 건강 및 재정 등을 지원받기 위해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Silverstein, 1995; Litwak, 1985; Siegel, 1985; Meyer and Speare, 1985) 성인 자녀로 대표되는 간병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Artamonova et al., 2023). 일반적으로 미망인과 장애가 결합될 때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Rogers and Watkins, 1987). 세 번째 유형은 노인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제도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Litwak, 1985; Litwak and Longino, 1987) 시설화된 주거형 보호 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Artamonova et al., 2023). 노인들이 심각한 형태의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지원이 충분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Rogers and Watkins 1987). 또한 산업 사회에서 전형적인 가정의 단위가 성인 두 명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노부모는 매우 제한된 자원을 보유함을 의미한다(Rogers and Watkins 1987).

다음, Cantor(1979)의 노년기 돌봄의 계층적 모델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심원 중심의 비공식적 돌봄부터 동심원 주변의 공식적 돌봄까지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포함한다(Cantor, 1991). 다양한 지원을 위해 각 동심원 및 개별 네트워크는 상호 작용하고 때로는 심지어 중복되기도 한다(Cantor, 1991). Cantor(1979)의 계층적 지원 모델에 따르면 노인이 받는 돌봄 유형은 개인의 선호도와 잠재적인 돌봄 제공자의 가용성에 따라 결정된다(Cantor,

4)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1979). 노인들은 공식적 돌봄 서비스보다 먼저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선호한다(Artamonova et al., 2020). 노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가장 안쪽의 두 집단, 즉 친척, 친구, 이웃, 특히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친족으로 구성된 비공식적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인이다(Cantor, 1991). 노년층이 가장 먼저 자주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공식 지원 시스템이며 광범위한 복지 기반을 제공한다(Brody, 1985; Cantor, 1975; Cantor and Little, 1985; Horowitz, 1985; Shanahan, 1979). 한편 친구와 이웃이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의 양과 성격은 친족이 제공하는 지원과 다르다(Cantor, 1979). 지원은 간병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거나(Davey et al., 2005) 비공식 지원 시스템의 구성원이 없거나 더 이상 지원 제공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노인과 그 가족이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Cantor, 1991).



자료 : Cantor(1979)

<그림 1> A model of the social care system of the elderly

## 2) 전략적 유산 동기와 세대 간 근접성

부모는 이기적, 이타적 또는 전략적 동기 때문에 유산을 남길 수 있다(Ho, 2022). 이기주의 동기 하에서 유산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치품이므로(Kopczuk and Lupton 2007; Liu et al., 2019), 유산은 부모의 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Ho, 2022). 이타주의 동기 하에서 부모는 자녀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Becker, 1974; Laitner and Juster, 1996; Laitner and Ohlsson, 2001). 따라서 부모가 모든 자녀를 동등하게 돌볼 때 가장 부유하지 않은 자녀에게 더 큰 유산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된다(Ho, 2022). 전략적 동기 하에서 부모는 자신의 유산을 자녀의 보살핌과 관심을 끌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한다(Bernheim et al., 1985).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에 따라 유산을 결정하는데(Bernheim et al., 1985; Brown, 2006; Groneck, 2017; Horioka et al., 2018) 자녀가 제공하는 돌봄 수준에 따라 유산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Ho, 2022).

한편, 유산 동기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는 엇갈린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미국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Sloan et al., 1997, 2002; Perozek, 1998; Pezzin and Schone, 1999; Brown, 2007)에서는 전략적 유산 동기에 반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Perozek(1998)과 Brown(2007)은 모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비공식적 돌봄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미국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중에서 전략적 유산 동기를 긍정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Bernheim et al.(1985)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과 자녀로부터 받는 관심 사이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Light and McGarry(2004)는 자신의 재산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려는 미국 어머니의 25%가 자신을 돌보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줄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Brown(2006)은 부모의 실제 유산 분할과 노년기 또는 임종 돌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에게 도움을 준 간병인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유증 수혜자가 될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roneck(2017)는 부모에게 임종 돌봄을 제공한 자녀가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많은 금액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검인 기록 및 설문 조사 등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을 돌보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맡기고 싶어 하였다(Horioka, 1984; Horioka et al., 2018; Light and McGarry, 2004; Norton and Taylor, 2005). 또한, 일본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Kohara and Ohtake, 2006; Yamada, 2006; Kureishi and Wakabayashi, 2009)에서도 대부분 전략적 유산 동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은 자녀가 받는 유산의 유형과 양에도 영향이 있다(Izuhara, 2002). Bernheim et al.(1985)의 전략적 유산 모델에 따르면, 자녀들의 거주지 선택은 전략적 변수이므로 기여 비용이 더 낮은 자녀 즉, 부모와 더 가까이 사는 자녀가 유리하다. 따라서, 전략적 유산 모델에서 각 자녀는 가급적 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전략적 인센티브를 갖는다(Konrad et al., 2002). 또한, 부모가 부자일수록 전략적 유산 동기가 더 강할 것으로 기대한다(Konrad et al., 2002). 이는 부모가 부유한 경우 자녀가 부모와 더 가까워지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Konrad et al., 2002). 따라서 오늘날의 주거 위치는 자녀가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재정적 선물을 제공하는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u, 2019).

## 2. 선행연구

이하에서는 노부모와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Silverstein(1995)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Longitudinal Study of Aging(LSOA) 자료를 활용하여 70세 이상 노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이동시간을 측정하여 지리적 거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의 신체적 건강이 악화할수록, 건강 쇠퇴와 사별이 결합할수록 비동거 자녀와 근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on et al.(1997)은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의 자료를 활용

하여 60세 이상 노부모와 가장 가까운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거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의 기능 제한이 증가할수록, 사별할수록, 주거를 이동할수록 근접성 수렴 가능성이 높은 반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근접성 수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년기 의존성 증가로 인해 가족 간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도움의 원천인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았다.

Zhang et al.(2013)은 2000년, 2002년 2004년의 Health and Retirement(HRS)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 간 근접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주택 소유일수록, 성인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혼에서 이혼으로 변화한 경우 10마일 내로 근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 지원 요구를 증가시키는 삶의 변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homas and Dommermuth(2020)은 노르웨이의 행정인구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부모와 18세 이상 비동거 자녀 간 상대적 위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일수록, 사별 또는 이혼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세입자로 거주할수록,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와 10km 이내 근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의 선진화 복지 환경에서도 지원 필요가 높은 생애주기의 특정 시점에서 가족 유대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Artamonova et al.(2020)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스웨덴의 인구행정등록부 자료를 활용하여 80세 이상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10km 이내로 이동하여 근접성 수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일수록, 부모 건강이 나빠질수록, 딸일수록 세대 간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배우자와 거주할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같은 동네 또는 10km 내 인근지역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 간 근접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거지 조정 이동 결정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박경숙(1997)은 미국의 1993

년도 AHEAD 자료와 일본의 1989년도 DSFH 자료를 활용하여 70세 이상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근접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부모의 건강이 나쁠수록, 중졸 이상일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첫째일수록, 자녀가 고졸 이상일수록, 친자일수록 세대 간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부모가 중졸 이상일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첫째일수록 세대 간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노부모의 경제적 지위, 자녀의 특성, 경제 자원의 지리적 분포, 문화적 규범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길제·최막중(2017)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활용하여 부모와 신혼부부 자녀 분가가구 간 거주 근접성 성별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소득이 많거나 순자산이 작을수록 분가 시점 신혼부부 중 남성의 부모와 거주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거 입지를 통해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자녀가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서 맞벌이이면 분가 시점에서 육아 시기로 갈수록 신혼부부 중 여성의 부모와 거주 근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시간 이전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정보선·이상엽(2021)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지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손자녀를 돌보거나 성인 자녀가 근로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서 세대 간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시간 이전을 확인하였다. 고령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하거나 자녀로부터 금전을 받는 경우 도시지역에서 세대 간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금전 이전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역과 관계없이 부모 건강이 나쁠수록 일관되게 세대 간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정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하였다. 기존의 정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분석과 달리, 동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변화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면 인과관계에 대하여 더 명확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t-1$ 기 대비  $t$ 기의 세대 간 근접성이 수렴했는지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t-1$ 기에서  $t$ 기로의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 인과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세대 간 지리적 관계에 주목하되, 관련 요인을 노인 가구의 개인 특성뿐 아니라 세대 관계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세대 관계 특성을 생존 자녀 수, 자녀와 접촉 빈도 등의 양적 차원과 유산상속 기대의 질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관계를 기반으로 돌봄의 맥락에서 전략적 유산 동기를 이해하고,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가구를 노인 단독가구와 비 단독가구로 구분하여 어떤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은 세대 간 관계와 지원의 질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주요 역할 중 하나인데(Lawton et al., 1994; Hank, 2007; Bordone, 2009), 이러한 근접 효과가 독거노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특정 요인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1. 모형 설정 및 변수 측정

#### 1) 모형 설정

본 연구는 이항(Binary) 종속변수인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이용하여 확률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Random effects probit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패널 모형의 경우에는 패널 개체 특성을 반영한 오차항을

추정해야 하는 모수로 간주하는 고정효과 모형과 이를 확률 변수로 가정하는 확률효과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다만, 표준정규분포를 적용하는 프로빗 모형에서 고정 효과를 적용하더라도 오차항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고정효과 모형이 적절하지 않다(민인식·최필선, 2012). 종속변수가 이항인 모형의  $w_i$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_i = 1 \text{ if } w_i^* > 0$$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w_i = 0 \text{ if } w_i^* \leq 0$$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유지·발산)

이때  $w_i$ 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이며, 실제 관찰되는 세대 간의 지리적 근접성 변화를  $w_i^*$ 라 가정할 때,  $w_i^* > 0$ 이면  $w_i = 1$ 이므로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t-1기에는 30분 이상에서 t기에는 30분 이내로 가까워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w_i^* \leq 0$ 이면  $w_i = 0$ 이므로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변화가 없거나 더 멀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때 패널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 특성을 반영하여 오차항을 포함하는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_i^{t*} = \alpha + \beta X_i^t + \gamma Y_i^t + \delta Z_i^t + u_i + \epsilon_i^t$$

$\Phi(\cdot)$ 이 표준누적정규분포 함수이며, 노인가구와 성인 자녀가구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ob(w_i^{t*} = 1) = \Phi(\alpha + \beta X_i^t + \gamma Y_i^t + \delta Z_i^t + u_i + \epsilon_i^t)$$

여기서  $X_i$ 는 노인 가구의 t-1기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이고,  $Y_i$ 는 노인 가구의 t-1기 자녀 관계 특성이고,  $Z_i$ 는 노인 가구의 t-1기에서 t기로 변화 특성을 말한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와 비 단독가구에 따라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의 상이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의 패널개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오차항을 포함한 노인 단독가구와 비 단독가구별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w_{yi}^{t*} = \alpha + \beta X_{yi}^t + \gamma Y_{yi}^t + u_{yi} + \epsilon_{yi}^t$$

$$w_{oi}^{t*} = \alpha + \beta X_{oi}^t + \gamma Y_{oi}^t + u_{oi} + \epsilon_{oi}^t$$

$\Phi(\cdot)$ 이 표준누적정규분포 함수이며 노인 단독가구와 비 단독가구의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ob(w_{yi}^{t*} = 1) = \Phi(\alpha + \beta X_{yi}^t + \gamma Y_{yi}^t + \delta Z_{yi}^t + u_{yi} + \epsilon_{yi}^t)$$

$$prob(w_{oi}^{t*} = 1) = \Phi(\alpha + \beta X_{oi}^t + \gamma Y_{oi}^t + \delta Z_{oi}^t + u_{oi} + \epsilon_{oi}^t)$$

여기서  $X_{yi}$ 는 단독 노인가구,  $X_{oi}$ 는 비 단독 노인가구의 t-1기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이다.  $Y_{yi}$ 는 단독 노인가구,  $Y_{oi}$ 는 비 단독 노인가구 t-1기 자녀 관계 특성이다.  $Z_{yi}$ 는 단독 노인가구,  $Z_{oi}$ 는 비 단독 노인가구의 t-1기에서 t기로 변화 특성이다.

## 2) 분석 자료 및 변수 측정

분석 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sup>5)</sup> 2012년(4차 조사)부터 2020년(8차 조사)까지의 패널자료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비동거 자녀에 대한 거리 조사<sup>6)</sup>와 유산을 남길 것인지에 관해 조사<sup>7)</sup>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안

5)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조사주기의 기본원칙은 2년 단위로 짝수년도에 실시함.

6)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비동거 자녀에 대한 거리에 관하여 '비동거 자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라는 설문 문항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으로 측정하여 조사하고 있음. 단순히 지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교통망, 접근성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실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자료이므로 비동거 자녀에 대한 거리를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7)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유산에 관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하여 생각했을 때, 나는 1억 원 이상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문 문항과 조사하고 있음. 해당 문항에 관해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0점을, '그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난

접인 부모와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정보와 유산상속에 관한 부모의 견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sup>8)</sup>이면서 자녀<sup>9)</sup>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노인 가구<sup>10)</sup>이다. 이에 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한 총 표본 수는 4,338개이며, 총 가구 수는 1,957가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불균등 패널자료이며, <그림 2>는 기간별 개체 수를 보여준다.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개체 수
					172
					173
					124
					256
					238
					50
					40
					186
					92
					310
					381
					126
					123
					567
					1,500
Number of total obs					4,338

<그림 2> 기간별 개체 수

<표 1>은 분석에 이용한 변수 정의 및 설명이다. 종속변수는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sup>11)</sup>로,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가 주거 입지를 조정하여 더 가깝게 거주하는 것으로서 근접성이 증가한 것으로 정의한다. 설명변수는 크게 t-1기 특성과 t-1기에서 t기

로의 변화 특성으로 구분된다. t-1기의 어떠한 특성에 의해 근접성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1기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t-1기에서 t기 사이에 발생한 변화한 특성도 근접성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t-1기 시점의 특성에 대한 차이에 기반한 변화 요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변화되었는지의 특성 변화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근접성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t-1기 특성은 인구학적, 경제적, 자녀 관계 특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t-1기의 인구학적 특성은 가구주 연령(65세~74세, 75세~84세, 85세 이상), 성별(남성=1), 혼인상태(기혼=1), 거주지역(대도시=1)을 고려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실질가구총소득, 실질순자산<sup>12)</sup>을 포함하였다. 자녀 관계 특성은 생존 자녀 수, 딸 유무, 아들 유무,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유무, 유산증여 기대<sup>12)</sup>를 고려하였다. 방문 빈도는 성별과 자녀 수에 따라 다르므로(Spitze and Logan, 1990)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전략적 유산 동기 하에서 부모는 자신의 유산을 자녀의 보살핌과 관심을 끌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데(Bernheim et al., 1985), 유산에 대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Angelini, 2007) 대리변수로 유산증여 기대를 이용하였다.

t-1기에서 t기로의 변화 특성은 건강상태 악화(악화=1), 주거이동(이사=1), 거주형태 변화(자가→

다라고 생각하면 100점을 생각하여, 0점에서 100점 사이의 범위 내에서 숫자로 0점, 10점, 20점, 30점, ..., 100점의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고 있음.

8) 65세의 연령 기준은 UN, WH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활용되는 고령화를 산정의 기준이므로(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를 준용함.  
 9) 대부분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같은 가정에서 거주하며 이사할 때 함께 움직이다가 부모와 자녀 간 공간적 분리는 자녀가 독립적 삶을 시작하는 청년기에 시작하는 점(Rogerson et al., 1997), 많은 연구(Artamonova et al., 2023; 2020; Ho, 2022; Holmlund et al., 2013; Bordone, 2009; Hank, 2007; Michielin and Mulder, 2007; Pezzin et al., 2007; Shelton and Grundy, 2000; Rogerson et al., 1997; Silverstein, 1995; Clark and Wolf, 1992)에서 성인 자녀와 노부모 간의 지리적 관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이를 준용하여 성인 자녀로 범위를 설정함.  
 10)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사는 노부모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Johar et al., 2010), 실제 노인가구 형태는 2008년 이후 노인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증가하고 자녀 동거가구는 감소하고 있음(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또한 노년기 희망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실제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노년기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08년 32.5%에서 2017년 15.2%로 낮아졌음(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한편, 오늘날 핵가족의 출현과 복지 제도의 발전이 가족 내의 사적인 지원을 몰아낼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최근 증거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림(Künemund et al., 2005).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적인 기회 구조를 구성하는 세대 간 근접성(Bengtson, 2001) 변화를 살펴보고, 핵가족화로 자녀와 비동거하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아울러, 동거 자녀 유무에 따라 비동거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상이하므로(정보선·이상엽, 2021) 자녀와 비동거하는 노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었음.  
 11) 관찰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이 t-1기에 30분 이상이었다가 t기에는 30분 이내로 수렴한 경우로 측정함. 가족 구성원 중 성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노인 부모와 가장 가까운 자녀와의 거리만을 사용하였음.  
 12) 본 연구에서는 0~100점 사이의 값을 0~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음.



임차, 임차→자가, 변화 없음)를 포함하였다. 부모의 건강이 아직 상대적으로 좋을 때와 악화될 때 자녀의 역할과 제공하는 지원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Knijin and Liefbroer, 2006) 부모의 건강상태 악화 변수를 포함하였다.

## 2. 기초통계량

〈표 2〉는 전체 노인가구, 노인 단독가구와 비 단독가구 분석 시,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다.

변수별 기초통계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46.7%, 단독가구 39.5%, 비 단독가구 54.2%이다.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45.0%, 단독가구 49.6%, 비 단독가구 40.0%이다. 가구주 연령이 85세 이상인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8.4%, 단독가구 10.9%, 비 단독가구 5.8%이다.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차이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 정의 및 설명

구분	변수명	단위	적용 모델	변수 설명	
종속변수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	dummy	공통	t-1기 30분 이상에서 t기 30분 이내로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여부	
독립변수	연도	2018년	dummy	공통	t-1기 연도 더미
		2016년	dummy	공통	t-1기 연도 더미
		2014년	dummy	공통	t-1기 연도 더미
		2012년	dummy	공통	t-1기 연도 더미, 기준더미
	인구학적 특성	연령 65세~74세	dummy	model 1	t-1기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 75세~84세	dummy	model 1	t-1기 가구주 연령 75세 이상 85세 미만
		연령 85세 이상	dummy	model 1	t-1기 가구주 연령 85세 이상, 기준 더미
		성별	dummy	model 1	t-1기 가구주 성별 남성/여성 더미
		혼인상태	dummy	model 1	t-1기 가구주 혼인상태 결혼/그 외 더미
	경제적 특성	거주지역	dummy	model 1	t-1기 대도시(서울, 행정구역이 광역시이면서 동부)/그 외 더미
		실질가구총소득	백만 원	model 1	t-1기 지역별·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20년 실질 값으로 환산한 값
	자녀관계 특성	실질순자산	백만 원	model 1	
		생존 자녀 수	명	model 1,2	현재 생존 자녀 수
		딸 유무	dummy	model 1,2	현재 생존 자녀 중 딸 유무
		아들 유무	dummy	model 1,2	현재 생존 자녀 중 아들 유무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유무	dummy	model 1,2	t-1기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만남 빈도
	t-1기 → t기 변화 특성	유산증여 기대	0~1의 값	model 1,2	t-1기 유산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
건강상태 악화		dummy	model 1,2,3	t-1기 대비 t기 주관적 건강상태 악화	
주거이동		dummy	model 1,2,3	t-1기에서 t기 사이에 이사	
거주형태 변화 자가→임차		dummy	model 1,2,3	t-1기 자가에서 t기 임차로 거주형태 변화	
거주형태 변화 임차→자가		dummy	model 1,2,3	t-1기 임차에서 t기 자가로 거주형태 변화	
거주형태 변화 없음		dummy	model 1,2,3	t-1기 대비 t기 거주형태 변화 없음, 기준더미	

〈표 2〉 기초통계량

변수명	전체 노인가구				노인 단독가구				노인 비 단독가구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대값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	0.102	0.303	0	1	0.101	0.301	0	1	0.104	0.306	0	1
2018년	0.259	0.438	0	1	0.274	0.446	0	1	0.243	0.429	0	1
2016년	0.260	0.439	0	1	0.272	0.445	0	1	0.248	0.432	0	1
2014년	0.268	0.443	0	1	0.240	0.427	0	1	0.298	0.458	0	1
2012년	0.212	0.409	0	1	0.214	0.410	0	1	0.211	0.408	0	1
연령 65세~74세	0.467	0.499	0	1	0.395	0.489	0	1	0.542	0.498	0	1
연령 75세~84세	0.450	0.498	0	1	0.496	0.500	0	1	0.400	0.490	0	1
연령 85세 이상	0.084	0.277	0	1	0.109	0.311	0	1	0.058	0.233	0	1
성별	0.520	0.500	0	1	0.173	0.378	0	1	0.886	0.317	0	1
혼인상태	0.448	0.497	0	1	0.030	0.171	0	1	0.889	0.314	0	1
거주지역	0.354	0.478	0	1	0.383	0.486	0	1	0.323	0.468	0	1
실질가구총소득	13,590	17,458	0	656,605	9,084	11,2861	0	243,563	18,278	21,178	0,011	656,605
실질순자산	182,291	254,241	-313,729	3623,27	133,265	201,017	-181,892	2741,539	233,963	291,552	-313,729	3623,27
생존 자녀 수	3.391	1.561	0	9	3.459	1.685	0	9	3.319	1.415	0	9
딸 유무	0.805	0.396	0	1	0.797	0.402	0	1	0.814	0.389	0	1
아들 유무	0.891	0.311	0	1	0.884	0.320	0	1	0.899	0.302	0	1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유무	0.250	0.433	0	1	0.261	0.439	0	1	0.239	0.426	0	1
유산증여 기대	0.395	0.339	0	1	0.321	0.333	0	1	0.471	0.327	0	1
건강상태 악화	0.437	0.496	0	1	0.422	0.494	0	1	0.452	0.498	0	1
주거이동	0.046	0.210	0	1	0.051	0.220	0	1	0.042	0.200	0	1
거주형태 변화 자가→임차	0.015	0.122	0	1	0.018	0.133	0	1	0.012	0.108	0	1
거주형태 변화 임차→자가	0.021	0.143	0	1	0.024	0.152	0	1	0.018	0.133	0	1
거주형태 변화 없음	0.964	0.186	0	1	0.958	0.200	0	1	0.970	0.170	0	1
Number of total obs	4,338				2,226				2,112			
Number of total groups	1,957											

t-1기에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전체 노인 가구 52.0%, 단독가구 17.3%, 비 단독가구 88.6%이다. 전체 가구에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비율이 유사한데, 단독 가구에서는 여성 노인이 대다수이나, 비 단독 가구에서는 남성 노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의 평균 수명을 웃도는 특성상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많다.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기혼인 경우는 전체 노인 가구 44.8%, 단독가구 3.0%이고, 비 단독가구 88.9%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에서 기혼이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독 가구에서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비 단독 가구에서는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가구는 35.4%, 단독가구는 38.3%, 비 단독가구는 32.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적어, 거주지역에 대한 노인의 일관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가구총소득의 경우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은 13.5590백만 원이고, 단독가구의 평균은 9.084백만 원이고, 비 단독가구의 평균은 18.278백만 원이다. 실질순자산의 경우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은 182.291백만 원이고, 단독가구의 평균은 133.265백만 원이고, 비 단독가구의 평균은 233.963백만 원이다. 이를 통해 가구 형태별 경제적 수준은 비 단독가구에 비해 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생존 자녀 수의 경우 전체 노인가구는 평균 3.391명이고, 단독가구는 평균은 3.459명이며, 비 단독가구는 평균 3.319명이다. 딸을 가진 경우 전체 노인가구는 80.5%, 단독가구는 79.7%, 비 단독가구는 81.4%으로 나타났다. 아들을 가진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89.1%, 단독가구는 88.4%, 비 단독가구 89.9%이다.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가 있는 전체 노인가구는 25.0%, 단독가구는 26.1%, 비 단독가구는 23.9%로 나타나 독거노인이 자녀와 만남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다. 유산증대 기대의 경우 전체 노인가구는 평균 0.395점이고, 노인 단독가구는 평균 0.321점이고, 비 단독가구는 0.471점이다.

t-1기 대비 t기에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43.7%, 단독가구 42.2%, 비 단독가구 45.2%로 나타나,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인지할 수 있다. t-1기와 t기 사이에 이사하여 주거를 이동한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4.6%, 단독가구 5.1%, 비 단독가구 4.2%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노인 가구가 주거를 이동하는 경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형태가 t-1기에 자가이다가 t기에는 임차로 변화한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1.5%, 단독가구 1.8%, 비 단독가구 1.2%로 나타났다. 또한, t-1기에 임차이다가 t기에는 자가로 변화한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2.1%, 단독가구 2.4%, 비 단독가구 1.8%이다. 한편, t-1기의 거주 형태와 t기의 거주 형태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노인가구 96.4%, 단독가구

95.8%, 비 단독가구 97.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t-1기와 t기 사이의 거주 형태가 변화한 경우의 비율이 매우 적은 반면, 변화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V. 분석 결과

〈표 3〉은 노인가구의 관점에서 성인 자녀와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표 4〉는 전체 노인가구를 하위 표본으로 독거가구와 비 독거가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각 모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모형 (1)은 t-1기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투입하였다. 모형(2)는 모형 (1)에 t-1기의 가족 관계 특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모형(3)은 모형(2)에 t-1기에서 t기로의 변화 특성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모형(4)와 (5)는 모형 (3)의 구성으로 하되, 모형(4)는 단독가구 표본으로 분석하고, 모형(5)는 비 단독가구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및 유의도를 살펴보면, 각 모형의 Log likelihood 값과 LR chi2 값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모형 (2), (3), (4)는 Prob >= 0.0000이므로 유의수준 1% 내 유의하며, 모형 (1), (5)는 유의수준 5% 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 변수는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도시 지역 거주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이 평균적으로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많은 연구(Rogerson et al., 1997; Shelton and Grundy, 2000; Michielin et al., 2008)에서 도시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도시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세대 간 근접성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비동거 자녀와 주1회 이상 왕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동부 노인의 경우 18.2%로 읍·면부 노인의 12.6%에 비해 약 6%p 높는데, 자녀와 노인 간 지리적 근접성이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sup>13)</sup> 덜 도시적인 환경에 거주하는 노부모는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부모보다 자녀와 더 가깝게 이동할 가능성이 적고 멀리 있는 자녀도 더 가깝게

이사할 가능성이 적다(Artamonova et al., 2020).

생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생존 자녀 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이 평균적으로 0.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녀가 많으면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지리적으로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Holmlund et al., 2013). 비동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는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며, 돌봄 지원 수혜율 역시 높으므로<sup>14)</sup>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돌봄의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Artamonov et al., 2023).

주목할 점은 자녀 성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 노인가구에서는 딸을 가질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는데, 노인 단독가구에서는 자녀 성별과 관계 없이 딸과 아들 모두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딸인 자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이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가구에서는 3.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인 단독가구에서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은 딸인 자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4.5%, 아들인 자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3.5%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한 한계효과 간접 비교 시 딸이 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딸은 아들에 비해 더 많은 보살핌을 제공하고 특히 일상생활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Silverstein et al., 2006; Haberkern et al., 2015), 성인 딸은 아들보다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Warnes, 1986). 결국, 배우자를 비롯하여 가구 내에서 노인을 부양할 가족원이 부족한 경우 떨어져 있는 자녀가 돌봄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t-1기에 노부모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자녀가 있을수록 t기의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근처에 다른 자녀가 살고 있는 노인은 가까운 곳에 자녀가 없는 노인보다 멀리 있는 자녀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적다(Artamonova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전체 노인가구, 노인 단독가구, 비 단독가구 모두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자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이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가구 4.4%, 단독가구 6.0%, 비 단독가구 4.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긴밀한 정서적 관계, 빈번한 접촉에 대한 민감도는 노인 단독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방문 횟수는 부모와 자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Konrad et al., 2002), 만남·접촉 실태는 자녀와의 거주거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sup>16)</sup> 지리적 거리는 자녀와 부모의 접촉 빈도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Angelini, 2007). 지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접촉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Hank, 2007), 실제로 지리적 거리는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접촉 빈도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부과한다(Rossi and Rossi, 1990). 따라서, 노인과 성인 자녀 사이의 거리, 접촉 및 애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Lawton et al., 1994) 자녀들과 충분히 가까이 살지 않는 경우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Artamonov et al., 2023).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와 같이 긴밀한 정서적 관계, 빈번한 접촉 등의 가용하고 있는 위치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주거지를 조정하려는 동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산증여 기대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시하고자 한다. 노인 단독가구의 유산증여 기대가 높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유산증여 기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은 평균적으로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략적 동기 하에서 부

13)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14)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15)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16)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표 3〉 전체 노인가구의 분석결과

구분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coef	z	coef	z	coef	z	dy/dx	
상수		-1.286***	-11.99	-1.799***	-11.07	-1.896***	-11.42		
독립 변수	연도	2018년	0.142*	1.85	0.153**	1.96	0.171**	2.17	0.031
		2016년	-0.046	-0.59	-0.045	-0.56	-0.030	-0.38	
		2014년	0.077	1.02	0.079	1.02	0.084	1.08	
		2012년 (기준더미)	-	-	-	-	-	-	
	인구학적 특성	65세~74세	-0.102	-1.08	-0.024	-0.24	-0.024	-0.24	
		75세~84세	-0.145	-1.55	-0.124	-1.29	-0.126	-1.31	
		85세 이상 (기준더미)	-	-	-	-	-	-	
		성별 (남성=1)	0.0001	0.00	0.007	0.09	0.007	0.08	
		혼인상태 (혼인=1)	-0.011	-0.13	-0.047	-0.52	-0.043	-0.49	
		거주지역 (대도시=1)	0.171*	3.21	0.234***	4.24	0.224***	4.03	0.040
	경제적 특성	실질가구총소득 (백만 원)	0.0003	0.22	0.0005	0.28	0.0004	0.25	
		실질순자산 (백만 원)	0.0001	0.87	0.0001	0.51	0.0001	0.52	
	자녀 관계 특성	생존 자녀 수			0.054**	2.46	0.056**	2.52	0.009
		딸 유무			0.200**	2.52	0.200**	2.51	-0.054
		아들 유무			0.131	1.32	0.144	1.45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유무			-0.349***	-5.22	-0.359***	-5.35	0.023
		유산증여 기대			0.144	1.58	0.149	1.63	0.025
	t-1기 → t기 변화 특성	건강상태 변화(약화=1)					0.116**	2.20	0.020
		주거이동 (이사=1)					0.226*	1.89	0.043
		거주형태 변화 (자가→임차=1)					0.374**	1.97	0.079
거주형태 변화 (임차→자가=1)						0.095	0.53		
거주형태 변화 없음(기준더미)						-	-		
Log likelihood		-1421.4903		-1393.3571		-1385.8994			
Wald chi2		21.99		74.50		88.57			
Prob > chi2		0.0152		0.0000		0.0000			
Number of obs		4,338							
Number of groups		1,957							

주 : <.01:\*\*\*, <.05:\*\*, <.10:\*

모는 자신의 유산을 자녀의 보살핌과 관심을 끌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데(Bernheim et al., 1985), 이때 유산에 대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Angelini, 2007) 부모의 유산증여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와 가까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상속인이 가까이 거주할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는 이러한 발견에 대한 가능한 설명일 수 있다(Tomassini et al., 2003). 특히, 편부모나 사별

한 부모는 부부 부모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와 부모가 근처에 살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Konrad et al., 2002).

t-1기 대비 t기의 건강 상태가 악화할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건강상태 악

<표 4> 노인 단독가구와 비 단독가구의 분석결과

구분	변수명	모형 (4) 단독가구			모형 (5) 비 단독가구			
		coef	z	dy/dx	coef	z	dy/dx	
상수		-1.922***	-6.49		-1.843***	-8.80		
독립 변수	연도	2018년	0.202*	1.23	0.035	0.138	1.80	
		2016년	-0.006	-0.48		-0.055	-0.05	
		2014년	0.165	-0.02		-0.002	1.47	
		2012년 (기준더미)	-	-		-	-	
	인구학적 특성	65세~74세	-0.152	0.95		0.164	-1.18	
		75세~84세	-0.207*	0.07	-0.034	0.012	-1.74	
		85세 이상 (기준더미)	-	-		-	-	
		성별 (남성=1)	0.010	0.00		-0.0003	0.10	
		혼인상태 (혼인=1)	-0.049	-0.71		-0.135	-0.22	
		거주지역 (대도시=1)	0.192**	3.41	0.032	0.270***	2.43	0.050
	경제적 특성	실질가구총소득 (백만 원)	-0.003	0.57		0.0010	-0.75	
		실질순자산 (백만 원)	-0.0002	1.16		0.0002	-0.77	
	자녀 관계 특성	생존 자녀 수	0.016	2.89		0.094***	0.52	0.016
		딸 유무	0.315**	0.99	0.045	0.110	2.70	
		아들 유무	0.245*	0.49	0.035	0.068	1.67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유무	-0.420***	-2.96	-0.060	-0.282***	-4.42	-0.044
		유산증여 기대	0.346**	-0.21	0.056	-0.028	2.58	
	t-1기 → t기 변화 특성	건강상태 변화(악화=1)	0.190**	0.57	0.032	0.043	2.53	
		주거이동 (이사=1)	0.182	1.61		0.290	1.12	
		거주형태 변화 (자가→임차=1)	0.464*	0.96	0.0996	0.302	1.92	
거주형태 변화 (임차→자가=1)		0.298	-0.81		-0.251	1.35		
거주형태 변화 없음(기준더미)		-	-		-	-		
Log likelihood		-692.34694			-684.73535			
Wald chi2		64.16			40.66			
Prob > chi2		0.0000			0.0027			
Number of sub obs		2,226						
Number of obs		4,338						
Number of groups		1,957						

주 : <.01:\*\*\*, <.05:\*\*, <.10:\*

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은 평균적으로 2.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많은 연구결과(Rogerson et al., 1997; Hank, 2007; Michielin and Mulder, 2008; Zhang et al., 2013)에서 노부모의 건강이 나쁜 경우 자녀와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 문제가 악화하면 자녀는 더 많은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데, 부모와 매우 가까이 사는 자녀는 이러한 의도를 충족할 기회가 있는 반면, 멀리 사는 자녀는 부모를 보호 시설로 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Artamonov et al., 2023). 결국 부모의 건강 약화는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Silverstein, 1995).

t-1기와 t기 사이에 노인가가 이사할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거이동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은 평균적으로 4.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업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이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많은 경우에 이사 비용은 부모에게도 부담스러우나, 은퇴 연령에 접어든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며 부양하는 아이가 있는 자녀에 비해 이사 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Konrad et al., 2002). 또한 이사에 따른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 비용이 상당할 수 있지만, 기대수명이 높으면 세대 간 근접성의 이점을 누리면서 이사 비용을 상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Zhang et al., 2013). 두 기간 사이의 이동은 세대 간 발산보다 수렴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부모가 이동하는 것이 자녀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Rogerson et al., 1997).

거주 형태의 변화 없는 경우에 비해 t-1기 자가에서 t기 임차로 거주 형태가 변화한 경우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자가에서 임차로의 거주형태 변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 확률은 평균적으로 7.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거지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노부모가

성인 자녀와 10km 이내의 근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and Dommermuth, 2020), 임차 거주는 자가 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사 비용이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주거지 조정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 비용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더 가까이 이사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Zhang et al., 2013).

## V. 결 론

본 연구는 돌봄 맥락에서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중점을 두어 자녀 관계 및 유산 상속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독거 효과에 따른 상이한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노인 단독가구와 비 단독가구로 나누어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012년부터 2020년(4차~8차 조사)까지를 활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패널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생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딸을 가질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할수록, 이사하여 주거를 이동할수록, 자가에서 임차로 거주 형태를 변화할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가 있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 한계효과를 비교하면, 거주 형태 변화, 딸 유무, 주거이동, 주 1회 만나는 자녀 유무, 건강상태 변화, 생존 자녀 수, 거주지역 순이다. 다음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딸을 가질수록, 아들을 가질수록, 유산상속 의향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할수록, 이사하여 주거를 이동할수록, 자가에서 임차로 거주 형태를 변화할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가 있을수록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가구의 평균 한계효과를 비교하면, 거주 형태 변화,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유무, 유산상

속 의향, 딸 유무, 아들 유무, 건강 상태 변화, 거주 지역 순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비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생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대 간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가 있을수록 세대 간 근접성이 수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독거효과 영향은 자녀 관계 특성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보였다. 첫째 자녀 성별에 관계없이 아들, 딸 모두 노인 독거가구의 경우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수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 독거가구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돌봄 가능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들과 충분히 가까이 살지 않아 돌봄을 이용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주거 입지를 조정하려는 위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산상속 기대는 노인 단독가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근접 효과는 보살핌 제공할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와 잠재적 상속인이 가까이 거주할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돌봄 제공 기대 및 유산상속 기대는 노인 단독가구에서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주 1회 이상 만나는 자녀가 있는 노부모는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였다. 기존의 주거지에서 활발하게 가용하고 있는 자녀 자원이 존재하는 노부모는 주거 입지를 재조정할 욕구가 감소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부모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는 자녀 유무는 세대 간 근접성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일관된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노부모와 성인 자녀가 가깝게 거주하려는 근접성 증가는 노년기 돌봄의 필요가 높으나 자녀들과 충분히 가까이 살지 않는 경우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주거지 조정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옆 등에는 기혼자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공존형 주택 공급 계획을 2022년도 발표하여 노인과 자녀의 근거리 거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려면 먼저 미시적 수준의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세대 공존형 주택의

입주자격 혹은 선정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정책 관련 실무자에게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평 혁신파크 부지에 공급될 예정인 '제1호 세대 공존형 주택'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거리,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근거리' 임계값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노부모 돌봄의 맥락에서 자녀와 비동거하는 노인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손자녀 돌봄의 측면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유산상속과 주거지 조정의 연관성과 양방향 돌봄의 측면을 폭넓게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자료의 특성상, 노년기 돌봄을 위한 주거지 조정 과정 중 하나인 노인요양시설 입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입주 등 다양한 주거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주거 입지 조정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도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2. 박경숙, 1997,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0(2), 한국인구학회: 67~98
3. 이길제·최막중, 2017, "신혼가구의 주거 입지에 나타나는 세대간 시간 자원의 이전과 성별 효과", 국토계획 52(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1~33
4. 정보선·이상엽, 2021, "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리적 근접성 결정요인에 관한 지역 비교 연구", 국토연구 109, 국토연구원: 37~52
5. Angelini, V., 2007,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evidence from SHARE*, "Marco Fanno" Working Papers 62, Dipartimento di Scienze Economiche "Marco Fanno", UNIVERSITÀ DEGLI STUDI DI PADOVA



6. Artamonova, A., Brandén, M., Gillespie, B. J., and Mulder, C. H., 2023, "Adult children's gender, number and proximity and older parents' moves to institutions : evidence from Sweden", *Ageing & Society* 43(2),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2~372
7. Artamonova, A., Gillespie, B. J., and Brandén, M., 2020, "Geographic mobility among older people and their adult children: The role of parents' health issues and family ti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6(8), Wiley: e2371
8.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63~1093
9.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1),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16
10. Bengtson, V. L., and Roberts, R. E. L.,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856~870
11. Bernheim, B. D., Shleifer, A., and Summers, L.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45~1076
12. Biggar, J. C., Cowper, D. C., and Yeatts, D. E., 1984, "National elderly migration patterns and selectivity: 1955-1960, 1965-1970, and decade trends", *Research on Aging* 6(2), Sage: 163~188
13. Bordone, V., 2009, "Contact and proximity of older people to their adult children: A comparison between Italy and Sweden", *Population, Space and Place* 15(4), Wiley: 359~380
14. Brandt, M., Haberkern, K., and Szydlik, M., 2009, "Intergenerational help and care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5), Oxford University Press: 585~601
15.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1), Oxford University Press: 19~29
16. Brown, M., 2006, "Informal care and the division of end-of-life transf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1(1),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1~219
17. Brown, M., 2007, *End-of-Life Transfers and the Decision to Care for a Paren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imeo
18. Cantor, M. H., 1975, "Life space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of the inner city elderly of New York", *The Gerontologist* 15(1), Oxford University Press: 23~27
19.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4), Sgae: 434~463
20. Cantor, M. H., 1991, "Family and community: Changing roles in an aging society", *The Gerontologist* 31(3),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337~346
21. Cantor, M., and Little, V., 1985, "Aging and social car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nd)*, edited by Binstock, R., and Shanas, E., Van Nostrand Reinhold: 745~781
22. Carter, J., 1988, "Elderly local mobility: An examination of determinant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search on Aging* 10(3), Sage: 399~419
23. Clark, R. L., and Wolf, D. A., 1992, "Proximity of children and elderly migration", in *Elderly migration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A comparative study*, edited by Rogers, A., Belhaven Press: 77~96
24. DaVanzo, J., 1981, "Repeat migration, information costs, and location-specific capital", *Population and Environment* 4, Springer: 45~73
25. Davey, B., Levin, E., Iliffe, S., and Kharicha, K., 2005,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care: implications for joint working and community care outcomes for older people",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19(1), Taylor & Francis: 22~34
26. Dykstra, P. A., 2009, "Older adult loneliness: myths and realities", *European Journal of Ageing*

- 6, Springer: 91~100
27. Dykstra, P., and Knipscheer, K., 1995, "The avail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structure of family relationships", In *Living Arrangements and Social Networks of Older Adults*, edited by Knipscheer, K., de Jong Gierveld, J., van Tilburg, T. G., and Dykstra P. V., VU University Press: 37~58
28. Erixson, O., and Ohlsson, H., 2019, "Estate division: Equal sharing, exchange motives, and Cinderella effec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2(4), European Society for Population Economics: 1437~1480
29. Fournier, G. M., Rasmussen, D. W., and Serow, W. J., 1988, "Elderly migration as a response to economic incentives", *Social Science Quarterly* 69(2), Southwest Social Science Association: 245~260
30. Fu, C. H., 2019, "Living arrangement and caregiving expectation: The effect of residential proximity on inter vivos transfe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2, Springer: 247~275
31. Groneck, M., 2017, "Bequests and informal long-term care: Evidence from HRS exit interviews", *Journal of Human Resources* 52(2),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531~572
32. Haberkern, K., Schmid, T., and Szydlik, M., 2015, "Gender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care in European welfare states", *Ageing & Society* 35(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8~320
33.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Wiley: 157~173
34. Ho, C., 2022, "Strategic parent meets detached child? parental intended bequest division and support from children", *Demography* 59(4),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1353~1376
35. Holmlund, H., Rainer, H., and Siedler, T., 2013, "Meet the parents? Family size and the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adult children and older mothers in Sweden", *Demography* 50(3),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903~931
36. Horioka, C. Y., 1984, "The applicability of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to Japan", *The Kyoto University Economic Review* 54(2), Kyoto University: 31~56
37. Horioka, C. Y., Gahramanov, E., Hayat, A., and Tang, X., 2018, "Why do children take care of their elderly parents? Are the Japanese any differen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9(1), Wiley: 113~136
38. Horowitz, A., 1985,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lderly",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1), Springer: 194~246
39. Izuhara, M., 2002, "Care and inheritance: Japanese and English perspectives on the 'generational contract'", *Ageing & Society* 2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61~77
40. Johar, M., Maruyama, S., and Nakamura, S., 2010, *Transition to Parent-Child Coresidence: Parental Needs and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Research Paper, UNSW Australian School of Business
41. Knijn, T. C., and Liefbroer, A. C., 2006 "More kin than kind: Instrumental support in families", in *Family solidarity in the Netherlands*, edited by Dykstra, P. A., Kalmijn, M., Knijn, T. C., Komter, A. E., Liefbroer, A. C., and Mulder, C. H., Dutch University Press: 89~105
42. Kohara, M., and Ohtake, F., 2006, *Altruism and the care of elderly parents: Evidence from Japanese families*, Working Paper, The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Osaka University
43. Kohli, M., Künemund, H., Motel, A., and Szydlik, M., 2002, "Families apart?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Myth of Generational Conflict*, edited by Arber, S., and Attias-Donfut, A., Routledge: 88~99
44. Konrad, K. A., Künemund, H., Lommerud, K. E., and Robledo, J. R., 2002, "Geography of the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981~998
45. Kopczuk, W., and Lupton, J. P., 2007, "To leave

- or not to leave: The distribution of bequest motiv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4(1), Oxford University Press: 207~235
46. Kureishi, W., and Wakabayashi, M., 2009, *One's own parents or one's spousal parents: A question of strategic bequest motives*, XXVI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47. Künemund, H., Motel-Klingebiel, A., and Kohli, M., 2005, “Do intergenerational transfers from elderly parents increase social inequality among their middle-aged children? Evidence from the German Aging Surve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1), Oxford University Press: S30~S36
  48. Laitner, J., and Juster, F. T., 1996, “New evidence on altruism: A study of TIAA-CREF retire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893~908
  49. Laitner, J., and Ohlsson, H., 2001, “Bequest motives: a comparison of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1), Elsevier: 205~236
  50. Lawton, L., Silverstein, M., and Bengtson, V., 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57~68
  51. Light, A., and McGarry, K., 2004, “Why parents play favorites: Explanations for unequal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94(5),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669~1681
  52. Litwak, E., 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The Guilford Press
  53. Litwak, E., and Longino Jr, C. F., 1987, “Migration patterns among the elderl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27(3), Oxford University Press: 266~272
  54. Liu, H., Song, C., and Zhu, S., 2019, *Intentional bequest motives and the choice of annuity*, Department of Economic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55. Meyer, J. W., and Speare Jr, A., 1985, “Distinctively elderly mobility: Types and determinants”, *Economic Geography* 61(1), Taylor & Francis: 79~88
  56. Michielin, F., and Mulder, C. H., 2007, “Geographical distanc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the Netherlands”, *Demographic Research* 17,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655~678
  57. Michielin, F., Mulder, C. H., and Zorlu, A., 2008, “Distance to parents and geographical mobility”, *Population, Space and Place* 14(4), Wiley: 327~345
  58. Nauck, B., 2009, “Patterns of exchange in kinship systems in Germany, Russ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0(2),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55~278
  59. Norton, E. C., and Taylor Jr, D. H., 2005, “Equal division of estates and the exchange motive”,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7(1), Taylor & Francis: 63~82
  60. Perozek, M. G., 1998, “A reexamination of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23~445
  61. Pezzin, L. E., Pollak, R. A., and Schone, B. S., 2007, “Efficiency in family bargaining: Living arrangements and caregiving decisions of adult children and disabled elderly parents”, *CEISifo Economic Studies* 53(1), Oxford University Press: 69~96
  62. Pezzin, L. E., and Schone, B. S., 1999, “Intergenerational household formation, female labor supply and informal caregiving: A bargaining approa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3),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475~503
  63. Rossi, A. S., and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Routledge

64. Rogers, A., and Watkins, J., 1987, "General versus elderly interstate migration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on Aging* 9(4), Sage: 483~529
65. Rogerson, P. A., Burr, J. A., and Lin, G., 1997, "Changes in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2), Wiley: 121~136
66. Serow, W. J., 1987, "Why the elderly move: Cross-national comparisons", *Research on Aging* 9(4), Sage: 582~597
67. Shanas, E., 1979, "Social myth as hypothesis: The case of the family relations of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1), Oxford University Press: 3~9
68. Shelton, N., and Grundy, E., 2000, "Proximity of adult children to their parents in Great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6(3), Wiley: 181~195
69. Siegel, D. I., 1985, "Homogeneous versus heterogeneous areas for the elderly", *Social Service Review* 59(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16~238
70. Silverstein, M., 1995, "Stability and change in temporal distance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2(1), Duke University Press: 29~45
71. Silverstein, M., and Bengtson, V. L.,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29~460
72. Silverstein, M., Gans, D., and Yang, F. M., 2006, "Intergenerational support to aging parents: The role of norms and needs", *Journal of Family Issues* 27(8), Sage: 1068~1084
73. Sloan, F. A., Picone, G., and Hoerger, T. J., 1997, "The supply of children's time to disabled elderly parents", *Economic Inquiry* 35(2), Wiley: 295~308
74. Sloan, F. A., Zhang, H. H., and Wang, J., 2002, "Upstream intergenerational transfers", *Southern Economic Journal* 69(2), 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363~380
75. Spitze, G., and Logan, J., 1990,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420~430
76. Szydlik, M., 2000, *Lebenslange Solidarität?: Generationenbeziehungen zwischen erwachsenen Kindern und Eltern*, Springer
77. Szydlik, M., 2008,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onflic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9(1), University of Toronto Press: 97~114
78. Szydlik, M., 2012, "Generations: Connections across the life cours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7(3), Elsevier: 100~111
79. Thomas, M. J., and Dommermuth, L., 2020, "Internal migration and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family ties and life ev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5),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461~1478
80. Tomassini, C., Wolf, D. A., and Rosina, A., 2003, "Parental housing assistance and parent-child proximity in Ita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700~715
81. Warnes, A. M., 1986, "The residential mobility histories of parents and children, and relationships to present proximity and social integr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18(12), Sage: 1581~1594
82. Wiseman, R. F., and Roseman, C. C., 1979, "A typology of elderly migration based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Economic Geography* 55(4), Taylor & Francis: 324~337
83. Yamada, K., 2006, "Intra-family transfers in Japan: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distance, and contact", *Applied Economics* 38(16), Taylor & Francis: 1839~1861
84. Zhang, Y., Engelman, M., and Agree, E. M., 201

- 3, "Moving considerations: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ent-child residential proximity for older Americans", *Research on Aging* 35(6), Sage: 663~687
87. [www.keis.or.kr](http://www.keis.or.kr),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88. [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89.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 
- 논문 접수일 : 2024. 2. 1
  - 1차 수정일 : 2024. 3. 7
  - 2차 수정일 : 2024. 3. 16
  - 게재 확정일 : 2024. 3. 21